

환경련 “광주·전남 보 894개 파손...철거 대상”

(경주=)

환경 악영향 실태 조사 시급

녹조유발 등 하천 생태 파괴

쓸모없는 보 철거 정책 세워야

광주·전남의 강과 하천에 설치된 4000여개의 보(狹·small dam) 중 19% 가량이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파손된 보를 철거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멸종한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하천에 설치된 4728개의 보 중 867개(18.3%)가 파손됐다.

보체(보 몸통)가 파손된 보는 446개, 에이프런(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된 보는 172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249개로 파악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체 138개 보 중 27개(19.6%)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체 파손 16개, 에이프런 파손 7개, 보체·에이프런 파손 4개다. 전국적으로는 3만3842개의 보 가운데 파손된 보는 5857개(17.3%)로 집계됐다.

보는 농업용수 등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작은 댐(저수시설)이다. 수위 5m 이상, 저수량 300만t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 폐기된 보와 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철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파손된 보는 물론 외관이 정상적인 보 전체에 대해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검토한 뒤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와 댐 등 각종 구조물은 하천의 물 흐름을 막아 수질 오염과 생물종 축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영산강에서 반복되는 녹조현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건설된 승촌보, 영산보의 영향이 크다”면서 “노후되고 파손된 보 뿐만 아니라 멸

정한 보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철거하는 게 자연의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태경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전국적으로 폐기된 보는 1995개로 파악됐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 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 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후,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된 보의 83%가량은 행정적(문서상)으로만 폐기됐고, 실제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과 별개로 보에 관한 기초 현황자료조차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시·도별 보 파손 현황

지역	전체 보 (개)	파손 보 (개)	파손 비율 (%)
전국	3만3842	5857	17.3
강원	2762	732	26.5
세종	261	67	25.7
경기	3258	705	21.6
광주	138	27	19.6
충남	4055	768	18.9
전남	4728	867	18.3
충북	1603	267	16.7
경북	4505	720	16
서울	189	29	15.3
전북	4142	629	15.2
대구	288	42	14.6
부산	115	16	13.9
대전	300	39	13
경남	6737	861	12.8
울산	738	86	11.7
인천	23	2	8.7
제주	0	-	-

〈자료: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여수시 삼산면 백도.

여수 백도 ‘빨쇠오리’ 집단 번식 확인

전 세계 1만 마리 멸종위기

보호구역 확대해 관리키로

여수 백도가 희귀 바다새인 ‘빨쇠오리’의 집단 번식지로 확인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국제적 보호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빨쇠오리가 집단 번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빨쇠오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된 보호종으로, 24cm 정도의 작은 바다새다.

전 세계적으로 5000~1만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는 신안 구굴도, 독도, 제주도 인근 섬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번식이 확인됐다.

빨쇠오리는 대부분 먼 바다에서 생활하며 번식기에만 무인도의 절벽이나 암반지대에 번식하는 생태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으로, 번식 성공률도 낮은 편이다.

지난 2013년 구굴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 새들의 번식 성공률은 53%로 파악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연구원(철새연구센터)과 함께 빨쇠오리 번식 현황과 개체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백도 일원에서 서·야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 결과 백도 반경 500m 내 해



바다새 ‘빨쇠오리’.

상에서 344마리의 빨쇠오리가 확인돼 백도가 빨쇠오리의 집단번식지임을 보여줬다.

크고 작은 섬 39개로 구성된 무인 군도인 백도는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는 지역이다.

또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Ia(학술적 엄정보호구역)로 인증된 국제적인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승희 소장은 “빨쇠오리의 집단번식지이자 학술적 엄정보호구역으로서 보전 가치가 뛰어난 백도 특별보호구역을 공유수면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섬마을 친구들의 호기심 천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일 완도 금일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도서지역 환경과학 꿈나무 교실’을 열었다. 초등학생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과 함께 산성도 측정, 드론 날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물고기 방류하며 영산강 사랑 표현해 보세요

오늘 영산포 등대광장

‘영산강 환경사랑 피유키’ 행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나주시 영산포 등대광장(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영산강 환경사랑 피유키’ 행사를 연다. 행사는 영산강유역의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민이 한마음으로 따를 영산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확

산시켜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영산강 삼베리,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옛 영산강에 노닐던 다양한 생명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등 유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행사는 식전 행사로 나주시립국악단의 공연, 국민연주회, 기념사, 환경 사랑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날 퍼포먼스로,

영산강 토종 어류 방류행사를 준비했다. 영산강 토종 어류인 동자개(일명 빠가사리) 8000마리를 영산강 상류, 중류, 하류 등 곳곳에 방류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큰입배스, 블루길 등 산란기에 맞춰 영산강 곳곳에 동자개를 풀어놓음으로써 외래어종의 알과 치어의 포식을 유도하고 고유어종이 증식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 참여 속에 진행되는 행사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친환경 비누, 모기약 만들기 체험부스, 황포돛배 승선 체험(무료) 등

이 그것이다. 영산강의 생태와 문화, 지역민의 삶을 담은 사진전도 함께 마련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한 영산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서식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영산강유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주민이 한마음으로 영산강을 보호하고 가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소속 16개 시민단체가 주관하며 주민 등 300여명의 참여 속에 진행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구, 여름방학 초등생 생태체험

광주시 서구는 초등학교 1~3학년대상으로 친환경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강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특강은 화요일반과 수요일반으로 나눠 매주 한차례씩 4주간(7월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이어진다. 반별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여름방학 특강은 풍암동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접수는 오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구청합동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서구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고 호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광주

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 마련했다.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은 ▲우리 조상의 지혜 배우기(1주차·창포물 머리기, 창포 효능 배우기, 노래 및 율동)

▲온실가스 줄이기(2주차·자기발전자전거 체험과 에너지 보드게임) ▲나무와 환경보호하기(3주차·취출기 비누방울 체험, 열매 팔찌 만들기) ▲수질오염 줄이기(4주차·빛물이 먹는물 되는 과정, 친환경 비누만들기)다. 문의 서구청 녹색환경과 062-360-7966.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